



강기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4일 광주시의회에서 '3자 단일화'를 함께 이끌어 낸 최영호(왼쪽)·민형배 후보와 나란히 '시민공동정부' 깃발을 들어 보이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단일후보 강기정...윤장현 불출마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구도 '급변'

내일 1차 컷오프 발표 앞두고 후보 일단 4명으로 압축
단일화 참여 3인 공동캠프 꾸리고 '시민공동정부' 의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중앙당의 컷오프에 앞서 민주화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한 예비후보 3명이 단일 후보를 선출한 뒤 통합 캠프를 출범시키고, 현역인 윤장현 시장이 불출마로 급선회하면서 경선 구도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강기정·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 3명은 여론조사와 시민사회단체 숙의배심원제를 통해 강기정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관련기사 3면〉

이들은 4일 광주시의회에서 "유권자 여론과 지역 시민사회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강기정 예비후보로 단일화를 결정했다"며 "단일후보를 중심으로 광주시장 경선 승리를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단일후보를 수락한 강 후보는 "변화는 시작됐고 변화의 완성은 시민의 몫"이라

며 "오늘의 시대정신인 광주성장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뜻을 함께해주시는 시민사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의 뜻을 보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 통 큰 결단을 해주신 민형배·최영호 후보, 불출마를 선언한 윤장현 시장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곧바로 공동 선거 캠프를 꾸리는 한편 '시민공동정부 전환위원회'를 가동해 선거와 당선 후 시정을 함께 설계하는 '시민공동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시장은 출마선언 몇몇만인 4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경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시장의 지지세력이 향후 경선과정에서 어느 후보에게 쏠릴 것인지도 경선의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윤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정신의 계승과 함께 올바른 미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라며 "6월 지방선거에 불출마하는 대신 시민시장으로서 부여받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 민선 6기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특히, 공직선거법상 지지 후보를 공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광주정신 계승'과 '새로운 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386 민주화 진영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단일후보 결정과 윤장현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강기정·양항자·이병훈·이용섭(가나다순) 후보로 압축됐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이 6일 광주시장 경선 1차 컷오프 대상과 경선 일정 등을 발표하면 경선후보 숫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은 애초 광주시장 경선후보를 5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용섭 예비후보의 탈당 경력에 대한 감점 문제를 결정하지 못해 6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공관위 측은 "탈당 경력자 감

점 문제를 오는 6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주면 그에 따라 체계를 해서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이용섭 예비후보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단수후보로 확정된 한 예비후보의 탈당 전력 때문에 경선 탈락자들이 반발이 강해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규에는 탈당 경력자 감산규정(후보자 격심사 시 득표의 10% 감산, 본 경선시 득표의 20% 감산)이 있지만, 예외 규정으로 '당의 요청에 의해 복당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14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안철수 대표의 측근인 윤장현 후보 전락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복당했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 측은 "당의 요청에 의해 복당했고, 당 대표의 복당 승인을 받았다"고 소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월 임시국회 국민투표법 개정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 보여주길"

임종석 비서실장 촉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어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

민투표법을 위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주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현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 부로 효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에 필요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현재 상황으로선 치러지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한편,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내주부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광주시·전남도 등 11곳...권리당원·시민 50%씩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부터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4일 오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경선 일정과 비용, 여론조사 시 사용할 직할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결과는 5일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우선 단수·전략공천 지역을 뺀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 11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9~22일 3차례에 걸쳐 경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선은 광역단체별로 3일간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50%씩 반영해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가 선출된다.

경선후보자가 3명인 서울, 경기, 인천, 전남 등 6곳은 첫 경선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없으면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결선은 이의제기 기간(48시간 이내) 이후 하루에 실시된다. 아직 경선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은 광주도 결선투

표 대상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 간의 지지율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분석도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 규모는 1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비 납부 규정상 경선 투표권을 가진 당원은 100만명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안심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진행되기 때문에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분석이 일반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도시와 피부 사이
빈틈없는 시티 선크어
헤라 선 메이트 프로텍터

HERA
SUN MATE PROTECTOR
SPF 50 PA+++
C.M.T. System
Control of UV Top

•전국 백화점 및 이모레키오셀리를 통해 구입가능합니다
•홈페이지: https://www.hera.com •고객상담실: 080-023-5454